

# 경구용치료제 65세이상 '우선 투약'

### 초도물량 내일 2만1천명분 재택·치료센터 입소자 대상

코로나19의 국면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경구용(먹는) 치료제가 오는 14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 1,000명분이 13일 국내에 도착해 하루 뒤인 14일부터 바로 처방 및 투약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총 3만1,000명분이 1월 중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한국

화이자와 계약한 총 76만2,000명의 치료제 가운데 일부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도 "유행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금 발생하는 경증 내지 중등증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라며 "도입 초기부터 일시에 소진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국장은 "유행 상황이 계속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중앙에서 30% 정도의 조정 물량을 갖고 특정 지역의 수요가 늘어나면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가운데 무증상자 등을 제외하고

증상이 나타나 후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게 된다.

초도물량은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할 계획이다.

병원·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재택치료자에 먼저 치료제를 공급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고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치료제를 전달받게 되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담당 의료진은 매일 대상자의 치료제 복용 및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 대면 진료를 연계한다.

특히 치료제와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위험한 만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관련 시스템을 활용, 처방 이력 관리 등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치료제는 확진자의 접촉력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접종자·미접종자의 구별 없이 증상과 필요성에 따라 치료제가 지원되고, 비용도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 기자회견 전남 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77명의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기자회견이 12일 여의도 소공동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 민주, 의원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 특권·기득권 내려놓기 차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혁신에 대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는 윤리특별위를 상시 운영하고, 윤리특위 구조 개편을 통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분회의 및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원할 경우'를 추가하고, 현행 '90일 이내'로 정해진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명백한 허

위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혁신위의 주장이다.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건수는 18대, 19대 국회에서 각각 0건, 20대 국회에서 1건이었다. 21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0건이다.

혁신위는 국회법을 개정해 윤리특위 회부시 30일 이내 조사 여부 결정, 윤리조사위의 60일(연장시 최장 90일) 이내 조사 마무리, 시민배심원단 의견, 30일 이내 윤리특위 판정 및 분회의 상정하는 방식으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체포동의안이 분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하는 안을 내놨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출직 공직자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 및 배우자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명백한 허



안철수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12일 서초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해군 장교 출신임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심상정 심상정 후보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반도체 등 빅10 프로젝트 육성"

### 로봇·우주항공·메타버스 등 5대 신산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는 12일 10대 산업을 중점 육성해 임기 내 연간 수출액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산업 대전환의 환경과 여건부터 단단하게 구축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해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먼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을 확보한 반도체·미래 모빌리티·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등 '이머징 5대 신산업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빅10 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혁신기술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 및 산학연 파트너십 운영 확대, 빅10 산업 모태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로 경제안보와 산업주권을 실현하겠다"며 "제2의 반도체 대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국가산업위협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부처별



로 공급망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국가공급망진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의 '경제안보 핵심 품목' 지정·관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중국·신남방·유럽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한미 산업기술 대화 정례화 등이 추진 과제로 꼽혔다.

이 후보는 "소부장 3.0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소부장 특별회계 2029년까지 5년 연장,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200개 이상 육성 등을 제안했다.

### 당정,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 관련,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논의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예측하건대 2월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3만명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금년 상반기에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되더라도 심야 극장 등 업종에 따른 미세조정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검토해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 문 "선거 때마다 거꾸로 가는 듯... 걱정"

### "분열 치유, 민주주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남은 마지막 과제는 국민 사이의 지나친 적대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히려 선거 시기가 되면 거꾸로 가는 것 같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7대 중대 지도자 간담회에서 "통합의 사회, 통합의 민주주의를 위해 종교 지도자들께서 잘 이끌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국민익의 윤석열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해지며 혼탁·과열 양상이 고조되는 데



따른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진영 간 대립으로 국민통합이 멀어질 경우 국가의 미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여야 양측에 공개적으로 발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이 성장에만 몰두해 지구 환경을 파괴한 탓에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의 노력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 [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스팀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